



[산업] 요즘 대세는 차박 완성차업계 캠핑족 겨냥 상품 붐물 08



Life

[라이프] 블프·광군제 할인 나서는 유통업계 너



“한국형 플랫폼 구축해 R&D 분업·협업 활성화 해야”

기조강연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대표

코로나19로 전세계 협업 시대 열려 민관협업 구축 등 효율성 극대화해야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대표는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 제약 바이오산업의 현주소와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을 공고히할 수 있는 기회를 조망했다.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2020 제약·바이오포럼-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가 열렸다.

이날 허 대표는 “올초 발발한 코로나19가 글로벌 팬데믹 상황으로 번질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전세계가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협업해야하는 시대가 왔다”고 입을 뗐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K-제약·바이오 산업의 포지션을 검토하고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아젠다를 ▲제약바이오산업 중요성과 가치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제약 바이오산업 현황과 전망 ▲우리의 과제, 혁신 성장 기회와 도전대 내까지 정의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홀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0 제약 & 바이오 포럼’에 참석한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대표이사가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제약 바이오산업은 국민의 보건·건강에 직결된 산업이다. 때문에 필수 의약품들을 국가 자체적으로 생산해 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역량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의약품 수요 또한 늘고 있다.

허 대표는 “제약바이오산업은 기술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앞으로 30년은 이 산업이 우리나라를 리드하는 성장

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제약바이오산업은 3.8%의 저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허 대표는 “올해는 저성장을 보이지만, 2026년까지 글로벌 처방약시장은 연평균 7.4%(약 1200조) 성장할 전망”이라며 글로벌 기업간 시장 점유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TOP10의 영향력이 줄고, 중소중견 바이오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기업에게 기회라는 말과 같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는 지난해 한국을 ‘글로벌 혁신지표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허 대표는 “OECD 20개 국가중 한국은 개발단계에서 혁신효율성이 낮다. 연구와 개발의 분업·협업 생태계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관협업 한국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R&D 효율성을 극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과 보건 향상, 더 나아가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 브랜드로서 전세계 TOP 에 손꼽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허 대표는 55개 제약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KO)을 운영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사상 최초의 공동 투자·개발 플랫폼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설립됐다.

/신원성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정운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이사.

“반도체 이어 제약 강국으로… 자본-기술 융합 혁신 키워드”

강연 정운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이사

“자본과 기술과의 융합이 앞으로 혁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정운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이사는 지난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0 제약·바이오포럼’에서 이 같이 조언했다.

이날 정 대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이어서 제약 강국이 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든다”며 “트렌드를 잘 읽고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주요 산업은 빅데이터, 재생의료, 정밀 의료, 웨어러블 기기, 인공지능 3D프린팅 등이라며, 이 산업들에는 자본과 기술과의 융합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자본과 기술이 합쳐지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산업 생태계 내에서는 각자 다른 이해관계를 절충해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에 따르면, 첫번째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는 비임상 전임단계서는 속도와 비용을 인공지능(AI)의 활용으로 타깃 밸류에이션 극복, 선제적 임상개발 전략, 환자 선별 등에 힘써야한다.

정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환자들이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치료제 투여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수출과 연구 개발에 더욱 매진하는 것이 타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김용상 리퓨어생명과학 대표.

“면역단백체 분석 기법 활용해 코로나 항체치료제 검증 단축”

강연 김용상 리퓨어생명과학 대표

“최신의 면역단백체 분석 방식을 통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연구 기간 단축하겠습니다.”

김용상 리퓨어생명과학 대표는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0 제약·바이오포럼’에서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리퓨어생명과학은 지난 6월 부터 연세대학교 의과대 산학협력단, 경남바이오파마와 함께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유래 치료 항체’를 개발하고 있다.

이날 김 대표와 함께 강연대에 오른 유정운 리퓨어생명과학 연구소장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 검증된 중화항체 단백질을 사용해 항원결정부위 단백질 서열을 신속하게 확보가능하다”며 “항체의 단백질 서열을 분석해 인간하에 개발을 진행하므로 잘못된 조합의 항체 방지며, 이미 중화능이 검증된 중화항체의 서열을 사용해 개발하므로 항체의 기능 검증 시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퓨어생명과학이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다양한 감염병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소장은 “이번 연구가 제시하는 면역단백체 기법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용 항체 제작 계획은 향후 다른 감염성 질환의 치료용 항체 제작에도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김재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제제과 과장.

“식약처, 백신 인허가 위해 규제 유연화 등 적극 지원”

강연 김재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제제과 과장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제제과장은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0 제약·바이오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과장은 “코로나19 재유행 및 감염병 대유행을 대비 하기 위한 위기대응 치료제·백신 등에 대한 신속 인허가를 위한 규제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신속심사 지원을 위해 고(GO) 신속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연구지원 ▲허가심사 지원 ▲기술정보 지원 등 허가심사경험이 많은 심사자의 전문컨설팅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시험 승인 및 품목 허가시 제출자료 면제 신속심사를 지원한다.

김 과장은 “횟수 제한 없이 하루에도 몇건씩 개발 단계부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 19 백신을 개발하고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식약처와 상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신속한 개발로 놓치기 쉬운 백신과 치료제의 효능과 안전성 검토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 과장은 “국내 개발 제품은 물론 해외 수입 백신 역시 효과와 안전성 등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